

특집을 내면서...



■인년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98년은 국내통신시장이 외국에 개방되는 첫 해인데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까지 밀어닥쳐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물밑듯이 밀려들 외국 자본에 대항해 국내 시장을 지키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선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산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IMF 국면을 사회의 기본구조 개편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에서는 컴퓨터 및 통신과 방송을 융합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기술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 음성, 문자 등을 표현하는 미디어의 통합네트워크화, 대형화 등의 특징을 갖는 멀티미디어는 위성의 광대역성, 동보성을 이용하게 되어 위성서비스의 사업범위는 매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성서비스는 이용면에서 국제간 통신 및 국내 기간통신에서부터 각급 경제조직체간의 시설통신은 물론 개인간 휴대통신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개발 추세와 발전 형태에 비추어 정보화시대의 매개서비스에 필수 전송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위성을 이용한 미래정보화사회의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위성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특집주제로 하여 꾸며 보았습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위성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위성원격교육과 위성을 이용한 원격의료 그리고 위성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추진동향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집을 위하여 특히 바쁜 중에도 시간을 아끼지 않고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특집호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통우연 편집위원 여러분, 편집담당 그리고 인쇄소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집위원장 최 경 수